

&lt;서평&gt;

***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11)**

최진영\*

## 1. 들어가는 말

재정적 청지기직 성경(*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 이하 FSB)은 미국 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컴퍼스(Compass-Finances God's Way)와 협력하여 출판한 성경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재물 관리에 관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sup>1)</sup> 성경 본문으로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EV)을 사용하며, 청지기직 및 하나님의 공급과 신뢰에 대한 2,000 구절 이상을 초록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하고 있다. 책 표지에 그려진 두 손에 담겨 있는 작은 나무 그림은, 책 뒷면의 마태복음 6:25-26 인용구와 함께, 이 편집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

FSB는 CEV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 “핵심(The Core)”이라는 제목 하에 재정적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공부 자료를 삽입하고 있다.<sup>2)</sup> 성경의 각 권은 간략한 도입과 개요로 시작한다. 또한 FSB는 책의 앞부분에 CEV에 관한 설명을, 책의 뒷부분에는 성경 소사전, 성경 각 권 요약, 성경 읽기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ity)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Colgate Rochester Crozer Divinity School, New Testament and Christian Origins 조교수. JChoi@crcls.edu.

1) 하워드 데이튼(Howard Dayton)에 의해 설립된 컴퍼스는 성경에 근거한 재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초교파 단체이다 (<http://www.compass1.org>).

2) “청지기직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읽기에 접근한다면, “The Core”를 “중심”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이다. 한편, “핵심” 성경 공부 자료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 아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간 부분인 전도서와 아가서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표, 특별한 낱들을 위한 구절들, 애용되는 구절들,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 용서에 대한 구절들을 부록으로 덧붙이고 있다.

이 서평은 FSB에 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첫째, FSB가 다른 번역본 대신 CEV를 사용하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 번역 성경에 대해 간략히 논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 책무에 관한 본문으로 분류된 구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중간에 삽입된 성경 공부 자료 “핵심”에서 다루는 재정적 청지기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FSB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기로 한다.

## 2. 성경 번역본: CEV의 선택

미국성서공회는 이미 현대적인 번역 성경인 Good News Bible을 출간한 바 있지만, 1995년 성서학자 바클레이 뉴먼(Barclay M. Newman)의 책임 편집 아래 그보다 더 쉬운 CEV를 출판하였다. 편집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 회화를 듣고 관찰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구사하는지를 연구하여 성서 번역에 반영하였다. 즉 CEV는 어린이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내용이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과 문장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 성경 번역이다. 예를 들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밝혀 뜻을 분명히 하고, 시 등의 운문은 반복을 피하고 운율에 맞게 배열하는 등, 언어의 경제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성경을 “들었을” 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의도했다. 또한 계약, 구원, 은혜, 의, 칭의, 성화, 속죄, 회개 등의 기독교적 용어들을 일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다. 나아가 성차별주의나 반유대주의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용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CEV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성경 번역의 주된 언어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번역에서의 정확성과 품위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성경 원어로부터 직접 번역하면서 의미의 정확성을 살리고자 시도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흠정역 성경(King James Version)의 정신을 공유하여 번역에서의 아름다움, 명료함, 품위를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CEV는 영어권의 모든 연령과 계층의 독자들이 읽고 듣고 이해하기가 가장 용이한 성경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미국 사회 속

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나이와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다. 어쩌면 경제의 문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것처럼,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기도 한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현상은 비단 현대 사회에서만 팽배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돈이 맘몬이 되는 현상을 직시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하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재물의 문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접근하기에 용이해서, 재물의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안내와 실제적인 사안들에 대한 통찰을 얻기에 충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FSB는 누구나 쉽게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본문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EV를 성경 본문으로 채택하였을 것이고, 본문에 관련 구절들을 초록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한 것이다.

### 3. 재정적 책무에 관해 선택된 구절들 분석 및 평가

한글 신약성경에서 청지기 직무 또는 직분으로 번역되는 *stewardship*(*oikonomia*)은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가정사를 운영하는 직무를 의미했다(눅 16:2-4).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 따라서 청지기직은 개인의 재물 관리보다는, 확대된 가족, 또는 공동체의 자원과 삶에 대한 책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교회, 특히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이자 사명으로, 나아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한다(고전 9:17; 엡 3:2; 골 1:25). 어떤 영어 번역 성경들은 “청지기 직무”(stewardship)라는 표현 대신, 보다 현대적 의미를 가진 “관리” 또는 “경영”(management)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책무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상들은 개인의 몸에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FSB는 일차적으로 재물 관리의 측면을 강조한다. 나아가, 신앙적 차원에서 재물의 관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FSB는 청지기직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에 관한 구절들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 각 권에서 재정적 청지기직에 관한 본문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구약에서 재정적 청지기직 관련 구절 비율이 가

장 높은 책은 학개(42.1%), 잠언(31.3%), 말라기(27.3%) 순이다. 한편, 역사서나 대예언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구절들을 적게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야기보다는 연설이나 교훈 등에서 재물 관리 및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율법서 중 가장 많은 관련 구절을 포함하는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연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보존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실제적인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서 많은 구절들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언서의 경우, 구체적인 예언의 맥락들이 묘사되고 있는 본문이나, 심판 위주의 말씀들은 청지기적 본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2.9%만이 재물과 소유에 관련된 구절들로 선택되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의 타락 특히, 사회 경제적 부정의와 관련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한다(5:26-29; 12:10-13). 그러나 FSB에서 이 구절들은 청지기직에 관련된 본문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전 총감독 바스홀에게 전해진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이 바벨론에 탈취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본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20:5; 29:4-5). 한편, 학개서의 경우 전체 절 수의 29%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관한 부분이 청지기직에 관련된 구절로 분류되었다. 청지기직에 관한 본문으로 분류된 학개 2:15-19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거의 형태로 언급하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즉 예언서들에서 공의, 특히 경제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청지기직에 관련된 구절로 분류되고는 있을지라도, 회복이나 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심판만을 다룬 구절은 종종 생략된다. 이는 청지기직에 대해 공동체적,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본문들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역사적 정황 설명이나 이야기 등의 본문에 경제관이나 청지기직에 관한 사상이 담겨 있을지라도, 구절들이 직접 재물과 소유에 관한 단어들이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구절들도 청지기적 본문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은 돈에 관한 태도나 재정 운영의 실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FSB에서 청지기직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 본문들은 일차적으로 개인적 신앙과 재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돌보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야기체 본문보다 편지나 교훈 등의 문

체로 된 부분들에서 재물과 소유에 관한 구절들을 찾기가 쉽다. 특히 유대 지혜 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야고보서가 전체 절 수 대비 가장 많은 관련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26.9%). 야고보서에는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강조한다(1:9-11, 27; 4:13-14; 5:1-6). 야고보서 다음으로 청지기직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책은 디모테전서인데(23.9%), 이 서신은 쉽게 사라질 부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경고 외에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반복한다(딤후 3:3, 8; 6:6-10, 17-19). FSB는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에서 과부와 종들에게 요구된 임무 및 위치를 청지기직과 관련한 본문으로 분류했는데(5:16; 6:1-2), 이러한 구절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본문들이다. 친척이 있는 과부가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나, 종들이 상전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명령은 당시 신약 시대 교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청지기직에 관련된 본문들을 포함하는 신약의 책들은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이다. 고린도후서에서는(22.2%),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연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8-9장 전체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었다. 빌립보서(20.2%) 2장의 그리스도 찬가는 재물과 소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이 바울에게 희생의 모범이 되며 또 바울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의 모범도 된다는 측면에서 청지기적 본문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연설이나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에 청지기직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원리는 복음서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마태복음(16.9%)과 누가복음의 경우(17.2%) 예수의 말씀, 특히 비유 말씀들이 청지기직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5-6장),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들(13장) 외에도,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와 소유에 대한 말씀(19:16-30)과,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20:1-16), 그리고 25장의 종말에 관한 비유 말씀들이 청지기적 본문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이야기체의 본문 가운데서 예수께서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공급을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청지기적 본문으로 선택되었다(14:15-21; 15:32-38).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 어떤 비유들은 비유 전체가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내포하기도 한다. 누가복음 14:15-24의 큰 잔치의 비유 전체가 초록색으로 표시

된 반면,<sup>3)</sup>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10:33-35),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16:19-25), 삭개오의 비유(19:1-2; 8-9)의 경우는 일부 구절만 청지기적 본문에 포함되었다. 비유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의 경우 어떤 부분을 포함시키고 제외시켜야 할지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청지기직”과 같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구절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돈과 소유에 연관된 단어들이 나타나는 본문을 찾는다 해도 청지기직과는 관련 없는 본문일 수 있는 반면, 보다 큰 맥락에서 청지기직에 관한 의미를 전달하는 본문이지만 재물에 관한 단어들을 직접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편집된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점은, 해당 주제의 본문 선택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분류 과정에 이미 해석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개별 구절이 직접적으로 재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제 FSB의 중간에 삽입된 성경 공부 자료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성경 공부 자료 “핵심”(The Core)에 대한 요약과 분석

FSB 중간에 삽입된 “핵심” 성경 공부 자료의 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 서언(First Word)

청지기직에 관한 본문으로 분류된 구절들 가운데 다시 핵심 구절들을 선택하여 주제별로 40일 성경 공부 교재를 구성하는데, 많은 주제들이 태도와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재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실제적 원칙들을 제시해 오셨다는 전제 하에,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사 41:13; 55:8-9; 눅 12:7). 또한 재정 운영에 관한 성경적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힌다.

3) 한편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22:1-10) 오직 두 절만 청지기직에 관한 본문으로 포함되었다.

## 4.2. 재정적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공부 본문 선택(Financial Stewardship Bible Study Selections)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권위 있는 말씀이다. 성경책에서 청지기직에 관련된 구절로 분류된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돈과 소유에 관한 태도와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다른 구절들은 운영의 원칙들에 관한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이다. 또 다른 구절들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재물과 소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보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시각들을 얻게 된다.

## 4.3. 40일 여정(40-Day Journey)

2,000개 이상의 구절 가운데 121개를 골라 18개의 주제 아래 40일 동안의 성경 공부를 구성하였다.<sup>4)</sup> 매 회 성경 공부는 기도, 성경 본문 읽기, 묵상,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일부터 8일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자 되심을 다룬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하는 본문을 통해(롬 6:16-18; 마 6:24-26), 사탄에 의해 왜곡된 세상의 가치 체계는 우리를 합리화와 자기기만으로 이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9-11일의 성경 공부들은 재물 관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으로서 “신실함”에 관해 다룬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관한 태도에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청지기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의 중요성을 다룬 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체적인 주제는 빛과 빛 보증의 문제이다(12-14). 이어지는 성경 공부들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배우자,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의 중요성(16-19), 정직(20-24), 구체(25-28), 노동과 직업(29-31), 휴식(32), 은퇴(33), 저축(34), 투자(35), 도박(36), 유산(37), 만족(38), 세금(39)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영원(40)에 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마친다.

## 4.4. 재정에 관한 소그룹 토론 안내(Small Group Financial Discussion Guide)

---

4) 실제로 절의 일부본문이 표기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2,590여 절이 초록색으로 표기되었으며, 성경 공부 본문에는 141개의 구절이 사용되었다.

40일 간의 성경 공부 내용을 5일치씩 묶어서 소그룹에서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즉 총 8회의 토론 자료가 있는데, 각 회는 5개의 질문들과 하나의 암송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성경 공부를 위해 한 문제씩 주어진다 고 보면 된다. 1-5일, 그리고 6-10일의 토론 주제들은 공급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이므로, “왜 당신의 재정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얻기 위해 왜 순종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가” 등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11-15일의 토론 주제들의 경우,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의 문제, 특히 빛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다룬다. 16-20일의 토론은 재정 운영에 있어 조언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21-25일의 논의는 정직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26-30일의 질문들은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31-35일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일과 휴식에 대한 태도, 은퇴를 위한 계획,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투자 등의 질문들이 주어진다. 36-40일의 토론은 도박, 유산, 만족, 세금에 관한 실제적인 질문들을 제공하며, 끝으로 어떻게 유한한 물질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 4.5. 재정적 청지기직 관련 단체(Financial Stewardship Organizations)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8개의 기관과, 관대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4개 조직의 웹사이트들을 소개한다.

#### 4.6. 주제 색인(Abbreviated Topical Index)

알파벳 순으로 주제에 따른 성경 구절들을 재분류했다. “40일 여정”의 성경 공부에 사용된 구절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색인의 주제들과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예산 집행(3), 만족(6), 충고(6), 빛(3), 기부(15), 하나님의 책임(주권, 통제, 제공, 10), 욕심(6), 정직(14), 빌려주기(5), 생활 방식(4), 소송(3), 인간의 책임(신실함, 순종, 주를 신뢰함, 7), 손해배상(3), 부자들과 부의 소유(12), 저축(3), 세금(2), 가난(13), 일(7).

앞서 재정적 책무에 관한 구절들로 분류된 본문들의 선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 점은 “40일 여정”의 성경 공부 구성, 소그



룹 토론 안내, 주제 색인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자료들의 내용 구성에서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재정적인 부분에도 깊이 관여하시며, 성경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청지기적 본문은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본문들은 “투자는 장기간의 훈련이다”, 또는 “신앙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라는 실제적인 조언들을 제시한다. 아마 독자들은 성경이 재물과 소유에 관해 이렇듯 많은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이 모든 구체적 지침들의 근간이 된다. 이 점이 성경적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 신앙에 있어 청지기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돈과 소유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 국한시킬 때, 경제적 삶에 관해 성경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20-21절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라는 말씀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한다. 또 한편, 본문은 땅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웃, 특히 속박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FSB는 레위기 25장 전체를 초록색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성경 공부 본문에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23절, 한 절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다. 나아가 주제 색인에서는 “정직”의 제목 아래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의 17절 한 구절을 포함한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8-9장 전체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지만, 26일의 성경 공부 본문으로 채택된 8:1-5는 가난한 자매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제목으로 접근된다.

청지기직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적, 사회적 실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까지 나아갔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FSB의 성경 공부와 주제 색인에는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요엘 등의 어느 구절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사회 경제적 정의에 관련된 예언자들의 외침은 성경 공부와

주제 색인에서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반면, 재물에 관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언 구절들의 경우는 40일 가운데 12일의 성경 공부 본문이며, 40일 동안 다뤄지는 전체 구절 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대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권세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이 성경 공부, 토론 안내, 그리고 주제 색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난한 자들”과 “구제”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구절들이 주제 색인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경제에 관한 구조적 또는 거시적 관점의 결여는 기부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도록 이끈다. “정직”이라는 주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 개인의 올곧음이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서 지도자의 정직은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불의한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 정직성(20-21일 성경 공부)이나 상사에게 복종하고 열심히 일할 것(30-31일 성경 공부)에 대한 요구는 단순하게 개인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인 경우가 많다. 만약, 고용주가 부정직한 관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오늘날 미취업과 대량 해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성경의 근본 가르침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노예화하는 mammon의 구조적인 파괴력을 직시하고, 성경의 경제 원리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처신에 대해 예언자적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는 말

FSB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돈과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관리하고 부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 또는 관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이 그러한 청지기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귀중하고 풍성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재화 관리와 경제 원리에 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분석

이 필요하고, 이러한 신학적 관점이 본문 선택과 성경 공부 교재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돈과 소유에 관한 성경적 언급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날의 상황 속에 적합하게 해석하여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FSB의 청지기직에 관한 본문 선택과 성경 공부와 토론 주제의 선정은 미국이라는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바 청지기직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은 주로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 경영학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다양한 무료 및 유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원리, 청지기직, 또는 사역이라는 단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 마인드가 돈, 소유, 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며,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한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공동체와 사회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오이코노미아”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보다 폭넓고 비판적인 관점 아래 재정적 청지기직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더 균형 잡힌 재물과 소유에 관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주제어>(Keywords)

하나님의 공급, 돈, 청지기직, 경제 정의, 성경 번역.

God's provision, money, stewardship, economic justice, Bible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4년 8월 6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부록>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 본문, “40일 여정”, 주제 색인에 사용된 구절 수

책 이름	책 별 절 수	청지기직 관련 구절 수 (%)	40일 성경 공부 구절 수	주제 색인 구절 수
창세기	1,533	117(7.6)	5	3
출애굽기	1,213	102(8.4)	5	6
레위기	859	74(8.6)	2	2
민수기	1,288	57(4.4)	0	4
신명기	959	173(18)	0	4
여호수아	658	16(2.4)	0	0
사사기	618	6(1)	0	0
룻기	85	13(15.3)	0	0
사무엘상하	1,505	23(1.5)	0	0
열왕기상하	1,535	84(5.5)	3	0
역대상하	1,764	145(8.2)	2	1
에스라	280	21(7.5)	0	0
느헤미야	406	54(13.3)	0	0
에스더	167	1(0.6)	0	0
욥기	1,070	97(9.1)	0	0
시편	2,461	146(5.9)	8	12
잠언	915	286(31.3)	24	39
전도서	222	37(16.7)	1	1
아가	117	0(0)	0	0
이사야	1,292	54(4.2)	6	3
예레미야	1,364	39(2.9)	0	0
예레미야애가	154	6(3.9)	0	0
에스겔	1,273	46(3.6)	0	2
다니엘	357	8(2.2)	2	1
호세아	197	3(1.5)	0	0
요엘	73	0(0)	0	0
아모스	146	16(11)	0	0
오바다	21	0(0)	0	0
요나	48	0(0)	0	0
미가	105	11(10.5)	0	0
나훔	47	0(0)	0	0
하박국	56	6(10.7)	0	0
스바냐	53	4(7.5)	0	1

책 이름	책 별 절 수	청지기직 관련 구절 수 (%)	40일 성경 공부 구절 수	주제 색인 구절 수
학개	38	16(42.1)	1	0
스가라	211	18(8.5)	0	0
말라기	55	15(27.3)	0	0
마태복음	1,071	181(16.9)	21	17
마가복음	678	78(11.5)	1	4
누가복음	1,151	198(17.2)	8	18
요한복음	879	36(4.1)	2	1
사도행전	1,007	74(7.3)	1	2
로마서	433	36(8.3)	12	7
고린도전후서	694	110(15.9)	9	15
갈라디아서	149	5(3.4)	0	0
에베소서	155	8(5.2)	0	4
빌립보서	104	21(20.2)	11	4
골로새서	95	12(12.6)	4	4
데살로니가 전후서	136	10(7.4)	2	2
디모데전후서	196	45(23)	5	13
디도서	46	7(15.2)	0	0
빌레몬서	25	3(12)	0	0
히브리서	303	18(5.9)	1	1
야고보서	108	29(26.9)	3	1
베드로전후서	166	10(6)	2	0
요한일삼서	132	8(6.1)	0	1
유다서	25	0(0)	0	0
요한계시록	404	9(2.2)	0	3
총합	31,102	2,592(8.3)	141	176

<Abstract>

***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11)**

Jin Young Choi  
(Colgate Rochester Crozer Divinity Schoo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FSB), which was published by American Bible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Compass-Finances God's Way. FSB uses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 translation and highlights in green color over 2,000 verses, which offer perspectives on money and principles of how to handle it. This Bible includes "The Core", which consists of a 40-day Bible Study, a small group discussion guide, and other resources such as a topical index, in the middle of the book. Accordingly, this review discusses: 1) the adaptation of CEV; 2) the selection of the verses that relate to stewardship; and 3) the texts and themes included in "The Core." Since financial matters are a widespread concern for most people today, the use of CEV seems to be a wise decision, considering its accessibility and readability. While highlighting verses related to money and possessions may help people easily find biblical texts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such as earning, spending, debt, and retirement, the selection itself has limitations in that it lacks consistency. FSB also selects a majority of verses from texts in the form of discourse rather than from narrative passages. Thus it appears that Proverbs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pertinent verses. Moreover, the Bible Study material also approaches the topics of stewardship as a personal matter, excluding biblical texts and themes that address communal and social concerns about money, possessions, and economic justice. Readers would benefit from reading and using FSB since it affirms that God cares for their lives no matter how serious their financial straits and encourages them to trust in God's provision. Yet a theologically holistic perspective on stewardship, which takes care of all resources God has given us, could overcome an individualist and consumerist tendency in dealing with this important topic of handling finances in faith.